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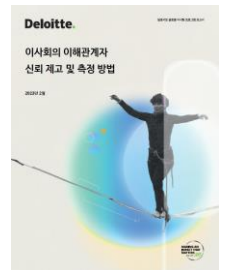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이사회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및 측정 방법

-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는지 탐구하기 위해 30개국, 177명의 이사회 멤버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하는 것은 평판 측면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지속적인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임
-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가치에서 동종 기업보다 최대 4배 더 우수하며, 고객 중 88%가 그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 기업이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때 고객 인식이 하락하여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신뢰와 직원 참여도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매우 신뢰하는 직원의 79%가 업무에 대한 의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서베이 주요 결과
  - 응답자의 약 5분의 4는 신뢰가 사업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직원 참여도와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 79%와 76%로 나타남
  -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진행중인 사업 운영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의 응답자는 사후대응적 태도를 보임
  - 응답자의 2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일관된 접근법이 없다고 답했고, 8%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만 신뢰를 우선시한다고 답함

다운로드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월호

## 2023년 이사회 아젠다

- 2018년 1월 발행되었던 On the Board's Agenda 초판과 5년 후인 본판의 안건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 다양한 새로운 주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주제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사회 고려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물론 2018년 이후에 이사회 안건에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에도 우선순위 항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가장 중요한 새로운 주제는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역할로,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법인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를 발표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이 집중된 이후 기업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같은 주주 이외의 단체에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일부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이사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적 문제로는 기업과 이사회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만든 광범위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관심에 기여했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업무공간 및 인력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음
- 지난 5년 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와 2023년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최근 부각되는 안건: 사이버보안, 이사회 효율성, 기후변화, 사회 내 기업 역할, 인재관리
  -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안건: 전략 및 리스크 감독

다운로드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CAQ

##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우선순위와 위원회 구성

- 본 보고서는 딜로이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가 협업하여 발행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2판으로 미국 상장기업의 감사위원 164명(응답자의 80%가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상장기업 재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리스크 출현 및 진화속도가 가속되며 감사위원회의 감독영역이 재무보고,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내부 및 외부감사를 넘어 사이버보안,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공시와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감사위원회 역할이 확대되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올해 서베이에선 좀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편협하게 집중된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 또한 주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핵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리스크 영역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함에 따라 IASB와 FASB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구성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들은 동료 위원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적용해야 할 모범적인 실무사례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함
- 서베이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 구성
  - 감독 영역
  - 핵심 리스크
  - 감사위원회 실무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7 (화) 금융감독원

###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 2023년 핵심과제 中 금융회사 책임경영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관련 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추진과제	조치사항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li> <li>✓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 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운영, 그룹 리스크 통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li> </ul> </li> </ul> </li> <li>• 금융회사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책임경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li> <li>✓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 점검 실시 등</li> </ul> </li> </ul> </li> </ul>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권 시장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 부담 경감·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li> <li>✓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li> </ul> </li> <li>•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회계법인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항목 수, 중요도 등) 재정비</li> <li>✓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조력 기업 등은 수사·세무당국 등 적극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Y22: 자산 2조원 이상 → FY23: 5천억원~2조원 → FY24: 1천억원~5천억원</li> </ul> </li> <li>✓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新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등과 연계,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지정제의 점수 부과</li> </ul> </li> <li>✓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가이드 및 모범사례 마련</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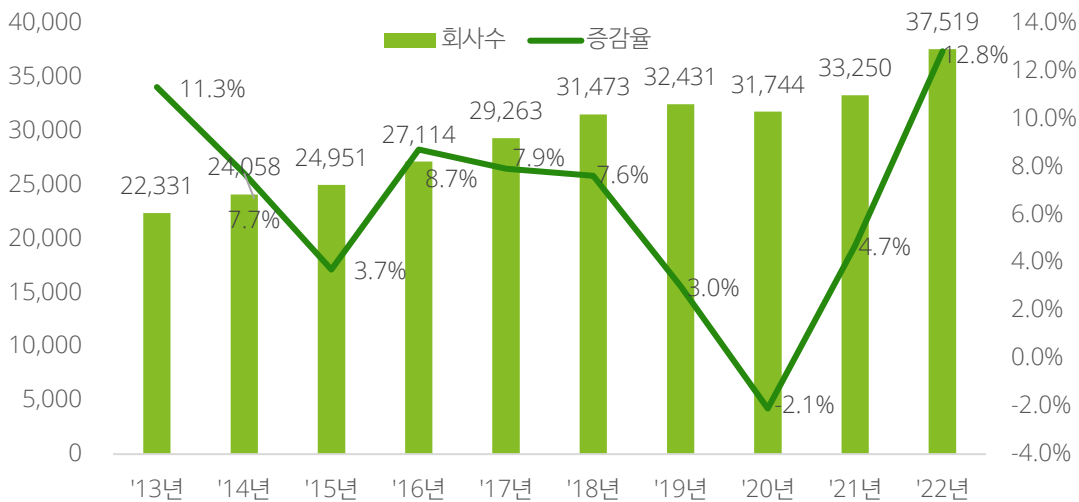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 (수) 금융감독원

###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 2022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12.8%) 증가함
- ▶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 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함
- ▶ 최근 10년 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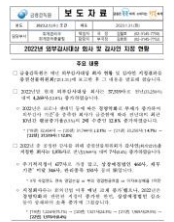
- ▶ 2022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 증가(0.4%)하였음

- 주기적지정 677사, 상장예정법인 460사, 재무기준 미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 미만) 346사, 관리종목 130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년대비 증감요인

	요인	내용
증가	재무기준 미달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 증가
	감사인 미선임	• 외부감사 대상 증가와 감사계약 체결기내 미체결 회사 증가
	선임절차 위반	• 감사인선임위원회 점검대상 증가와 선임절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년대비 감소
감소	관리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지정기간(3~4년) 종료와 재무기준 미달 등 신규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대표 지정사유 변경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 지정사유 시행 이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된 회사 감소
	부채비율 과다	• '22 사업연도부터 부채비율 지정 사유 폐지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1 (화) 금융위원회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시함

-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개선 방안

	현황	개선
결산배당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기업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 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총에서 결정됨</li> <li>•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 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li> <li>✓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li> </ul>
상장회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 6, 9월 말일의 주주(배당 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 (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배당 절차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23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li> <li>✓ 3, 6,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li> <li>✓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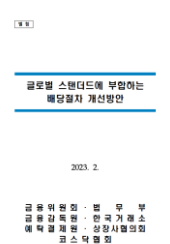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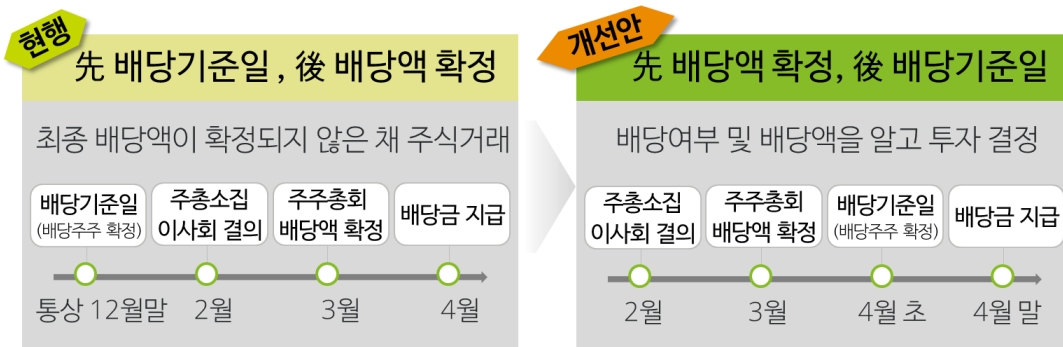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1 (화) 금융위원회

### (계속)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배당제도 개선안



▶ 관행개선 방안 중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내용

-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임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 중 개정 후 배포 계획)
-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예정임

▶ 기대효과

-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며,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 증권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권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0 (월) 금융위원회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 2023년 업무 추진과제 中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사항

#### 추진과제

#### 조치사항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보고 범위 확대</li> </ul> </li> <li>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업 : ('24년) 자산 10조원 이상 → ('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li> <li>✓ 공시내용 :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li> </ul> </li> </ul>
상장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 유권해석(법무부), 자본시장법 개정</li> <li>✓ (관행) 개선방안을 상장회사협의회 등 표준정관에 반영, 개선여부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li> </ul> </li> <li>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 보유보고의무(5% 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li> <li>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튜어드십코드에 ESG 요소 반영, 주주활동 공시 강화 등</li> </ul> </li> </ul>
자금조달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li> <li>개인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내 비상장주식 등 포함</li> <li>✓ 고위험·고수익 채권(BBB+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제공 등</li> </ul> </li> </ul>

- ▶ 추진과제 조치사항 및 시행 일정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자본법 시행령 개정	3분기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개정	-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4분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연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 마련	방안 발표	연중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	조특법 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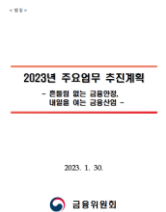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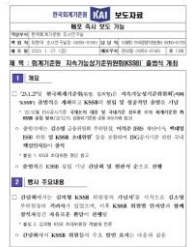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7 (금)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식 개최

-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 출범식을 개최함
- ▶ 간담회 주요 발언

다운로드



QR 코드



발언자	주요 발언
김의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성 공시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는 사업모델의 변명과 혁신</li> <li>한국회계기준원·KSSB는 공시기준 제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산업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li> </ul>
박세환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KSSB의 중요한 역할</li> <li>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 요청</li> </ul>
우태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의견은 기대 반 우려 반</li> <li>향후 KSSB는 ESG 공시 현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창구 역할</li> </ul>
임재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시 ESG 정보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기업에 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li> </ul>
이병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수적</li> <li>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li> </ul>
백복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린워싱 문제 해결과 보다 신뢰할 만한 공시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li> <li>공시기준이 가지는 정교함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li> </ul>
조윤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 속 공시기준 마련은 기업들에게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써의 작업</li> </ul>

▶ 향후 계획

- KSSB는 2023년 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할 예정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8 (수) 한국ESG기준원

### 한국ESG기준원 정책세미나 개최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

- 현재까지 대다수 국내 상장기업의 집중된 소유구조 특성으로 인해 주로 지배주주 일가의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음
- 이로 인해 일부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1)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외부 일반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 2)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하는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발표에 대한 주요 내용
  - 소유구조 특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분석 관점이 달라짐
    - ✓ 집중된 소유구조에서는 지배주주, 분산된 소유구조에서는 경영자가 대리인
  - 대리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차이
    - ✓ 지배주주에 대비하여 경영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부적절하게 참호를 구축하는 대리인 문제(entrenchment)를 초래
  - 경영자가 대리인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 ✓ 외부 일반주주(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을 조성
    - ✓ 이들의 적극적인 주주권(active ownership)이 의결권이 없는 경영자에게 실효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기업 내부에서 CEO(또는 회장)의 선임 및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한하는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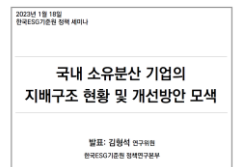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추가 숙제에 고민 깊어진 금융사 [조선비즈]
- 전경련, 기업 93% 올해 ESG경영 규모 작년수준 이상 유지 [연합뉴스]
- 갑자기 입김 세진 '행동주의 펀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때문? [매일경제]
- '지배구조 개선 부르짖지만 목적은 투자 수익', 행동주의 펀드의 민낯 [조선비즈]
- 200대 기업 사외이사비율 평균 53.56%, '거수기 논란' 넘어 실효성 제고 필요 [한스경제]
-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커져, ESG 금융제도 대폭 정비" [헤럴드경제]
- 'ESG 공시의무화 큰 장 선다', 회계업계 분주 [한국경제]
- 'ESG 행동주의 부각, 기업 주가 상승 韓증시 재평가 긍정적' [이데일리]
- 매출액 500대 기업 93%, 경기 악화에도 ESG경영 유지·확대한다 [인더스트리뉴스]



#### 이사회·감사위원회

- 금융당국 칼끝, 예정대로 이사회까지 겨냥...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기점' [인베스트조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 이사회 운영·CEO 성과체계 등 지배구조 집중 점검' [연합인포맥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업인 사외이사 적극 영입하자" [한경오피니언]
- 4대 금융지주 이사회 겨냥하는 금융당국, 사외이사 무엇이 문제이길래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 분석 - 모빌리티·소프트웨어 모두 경험한 경제인 선임 의미 [더벨]
- 'ESG' 외치지만... 기업 이사회 의장·대표 분리는 여전히 미흡 [뉴스웨이]
- 최태원 SK그룹 회장, "다양성이 존재하는 조직은 생산효율 20~30%가량 높다" [이코노미스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로이트 전문가가 분석한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2023' 발간 [뉴스와이어]
- 2023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전기차' 보다 '하이브리드차' 선호도 2.6배 높아 [동아일보]
- 김우성 한국 딜로이트 CIO "클라우드 확산이 'IT 오프쇼어링' 앞당겨" [아주경제]
- 딜로이트 안진, 자금사고 징후 진단·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출시 [인공지능신문]
- 딜로이트, 국내 소비자 자동차구매심리 하락 추세 [오토뷰]
- 딜로이트 금융 인사이트 - ESG '못난이'부터 'OUT', 성과 공시 중요 [매경이코노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사이버의 미래 2023 서베이' 리포트 국문본 공개 [ITWorld]
- 모니터 딜로이트 - '정어'와 ChatGPT 열풍...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한국경제]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회계 투명성 해칠라, 도입 4년 '지정감사제' 유명무실 위기 [매일경제]
- 회계개혁 주도 '최중경 前 장관' 경고, "개혁은 긴 호흡 필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초심 잃으면 실패" [내일신문]
- 실적저하 기업들 감사의견 놓고 회계법인과 갈등 우려, 지정감사제 곳곳서 파열음 [인베스트조선]



## 부정행위방지

- '데이터 분석으로 횡령 잡는다' IT솔루션 시장 문턱 넘는 회계법인 [아주경제]
- 금감원, 불법공매도 집중 단속... 사모CB 발행기업 엄정조사 [뉴시스]
- 2023년, 기업 내부통제와 회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 높이는 원년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 '이직?' 아니면 '기술 유출?' 그 위험한 경계, '미국에선 경제 스파이' [KBS뉴스]



## 규제 동향

-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 부담 줄인다, 공인회계사회 추진 [이데일리]
- 금융보안 환경 변화와 정보보호 -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법률신문]
- ESG칼럼 - 탄소규제 강화하는 EU·미국, 韓 대응 전략 [전자신문]
- 금융감독원, 빅테크 감독 본격화... 英감독청 파견 [뉴시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2'나 '9+3'으로 완화 가닥 [서울경제]
- 빅4 회계법인 감독 세진다... 금감원 "檢 적극 통보" [이데일리]



## M&A

- '눈치 게임은 끝났다', 해 바뀌자 M&A 액셀 [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 M&A 독과점폐해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연합뉴스]
- 불 붙은 공개매수의 시대, 'M&A 배심원 제도' 막이 올랐다 [이데일리]
- '올 M&A 시장 화두는 AI... 하반기 IPO 회복' [매일경제]
- 공간 두둑한 식품사, M&A 큰 손 됐다 [머니투데이]

#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월 27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분석 및 제언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1년에 4회, 계간지)를 발간함
- ▶ 「기업지배기구 Insights」는 기업지배구조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과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등을 포함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창간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안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 본 창간호에는 기업지배기구와 관련한 현안, 전문가 기고문과 함께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아젠다와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및 실무 FAQ 등을 담음

구독하기

QR 코드



목차	내용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Audit&Assurance 부문 COO 김한석 ②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기회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① 2023년 이사회 아젠다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및 시사점
III. 데이터 포인트	① 국내 상장법인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여성 사외이사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② 2023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서베이로 살펴보는 지배기구의 당면과제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기준의 방향성 및 지배기구 감독의 시사점 ② 2023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추진과제
V. FAQ	① 주주제안권 ② 재무제표 감리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 [웹 세미나] 이사회를 위한 테크 트렌드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3월 3일 (금) 오전 01:00 (KST) ※ 본 웨비나는 북미·유럽 시간대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경우 웨비나 등록 시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함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릴린 휴슨 (록히드 마틴 前 CEO)</li> <li>• 마리아 암파로 모랄레다 (몰러-머스크 그룹, 보다폰 그룹, 에어버스, 카이샤은행 사외이사)</li> <li>• 피터 세이니 (노바티스, 도이치 텔레콤, 스위스 포스트, UBS 前 CIO(최고정보책임자))</li> <li>• 모더레이터: 마크 릴리 (딜로이트 글로벌 CIO 프로그램 리더)</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메가트렌드가 무엇인지</li> <li>✓ 모범적인 이사회가 기술이 가져올 혁신적인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li> <li>✓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이 향후 고려하는 산업에 혁신과 경쟁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투자하고 있는지</li> <li>✓ 모범적인 이사회가 인공지능(AI)부터 클라우드 및 양자 기반 컴퓨팅,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최신 기술 발전의 전략적 영향을 고려하는 데 어떻게 경영진을 지원할 수 있는지</li> </ul> </li> </ul>

신청하기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mailto: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